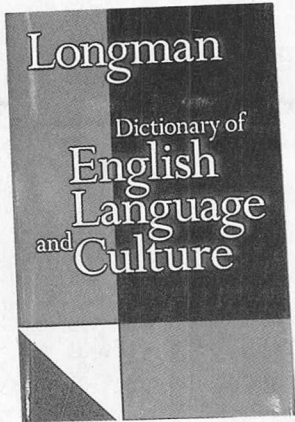


신조어 광범하게 포괄한 '문화사전'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흔히 사전을 가리켜 한 나라의 문화의 잣대라 말한다. 그 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전이 나와 있으며, 또 그 내용은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있게 서술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제때 개정판을 내어 가장 최근까지의 정보를 수록하느냐 등은 해당국의 문화적 역량을 다른 어떤 것보다 뚜렷히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사전의 명문인 영국의 Longman이 최근 펴낸 1993년도판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문진당 수입·공급)는 '문화사전'이라는 특수한 영역이 가리키듯 최근까지의 각종의 문화용어 및 신조어를 광범위하게 포괄, 기존의 롱맨사전을 충실히 보완한 가장 최신판 영영사전이다.

15000여 표제어는 일반사전에서 볼 수 있는 어휘들이 아니라 이름하여 '컬처표제어'. 따

라서 셰익스피어나 괴테, 엘비스 프레슬리, 제임스 딘, 링컨, 프랭클린 등의 생물년대와 그들의 주요업적, 그들이 작가라면 주요 작품들이 간략한 해제를 곁들여 설명돼 있고, 그들이 대중가수라면 주요 공연무대 및 인기곡 등이 수록되는 등 인물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주변적 상황까지 당시 역사와 문화를 한 인물을 통해 읽어낼 수 있게 설명을 달았다. 또한 다다나 팝아트 등 미술 사조에 관한 표제어나 미술가들에 대한 설명에는 화려한 원색도판을 곁들여 그림감상도 함께 할 수 있게 꾸몄다. 특히 최신판인만큼 빌 클린턴이나 매직 존슨, 타이슨의 근황도 상세히 소개돼 있어 실용사전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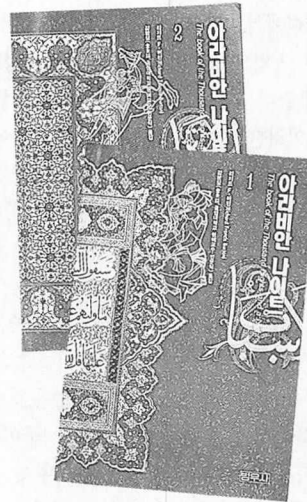
500여개의 흑백 삽화와 사진, 32면의 칼라 사진을 통해 영·미권의 생활현장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으며, 16면에 이르는 특별기사에는 영·미권의 법률·교육·결혼제도 등에 대해 해설돼 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사전으로 롱맨보다 더 규모가 큰 「American Heritage Dictionary」가 있으나 롱맨이 내세우는 이 사전만의 고유한 특징은 기본 정의의 2000단어만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만 갖추면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했다는 점. 그 2000단어를 바탕으로 한 총 8000여 어휘는 영어교재나 신문을 읽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단어를 포괄하고 있어 깊이있게 영·미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문진당/A5신 변형/1556면/25000원

비로소 완역되는 아랍문학의 정수

범우사 刊 「아라비안 나이트」



근래들어 외국고전의 무삭제 완역본들이 출간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걸리버여행기」, 「이솝우화」 등이 그들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신화·전설·민담 등 설화문학작품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 「중국의 신화전설」, 「리벨롱겐의 노래」, 기원전 사람이 동물로 변한 신화들만을 모아놓은 「메타 몰포시스」, 「아라비안 나이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범우사 刊 「아라비안 나이트」는 위의 두 '흐름'에 발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

현재 3권까지 나온 이 책은 아랍 혹은 회교권의 '중세설화大系'라 불릴 만한 영국의 프랜시스 버턴의 「千一夜話」 판본으로 93년 전 10권으로 완역될 예정인 것. 지금까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알라딘과 마술램프」, 「신밧드의 모험」 등 아동 대상의 모험담으로, 혹은 성인물일지라도 抄譯된 판본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아라비안 나이트」의 '원본'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회교(사라센)문화에 의해 배양된 妖花이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랍인의 무의식이 문학형태로 표출된 '설화집'이라는 점에서 근래 외국고전번역물의 두 흐름의 접점을 보여 주는 책이라 할 만하다.

남녀간의 애정 표현과 행위가 너무 적나라하다고 하여 한때 유럽에서는 금서취급을 받기도 한 이 작품은 인간본성의 원초적 정념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천진난만하게 표현한다. 그리하여 금세기에 들어 "능동적 삶의 이야기", "설화문학의 최고봉" 혹은 "아랍문학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가장 이국적 정취를 물씬 풍겨줄 아랍 특유의 관념이나 사상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건들면 터질 듯한 유머, 해학, 풍자적인 필체로 펼쳐져 있어 진즉부터 매혹적인 책으로 인정돼왔음 또한 두루 아는 사실이다.

'원저자'인 리처드 프랜시스 버턴(Richard Francis Burton: 1821~90)은 영국의 어학적 천재이자 외교관이자 동양학자로 알려진 인물. 35개 외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그 재능으로 중동 등지의 전승 전설·민화·동화 280여편을 완벽히 정리하여 이 책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역자인 김병철씨(중앙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머리말」에서 이슬람교가 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게 이 작품의 주제적식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힌다.

범우사/A5신/각 494면 내외/각 8000원

출판사 경영관리업무를 전산화해 드립니다.

"나라정보시스템"에서는 차세대 출판서적유통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출판산업계의 전산화 확대보급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사의 판매, 재고, 영업 및 경영관리업무 전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기회를 드립니다.

- | 1. 기본정보관리 | 2. 전표관리 | 3. 일보작성 | 4. 도서재고관리 | 5. 원장관리 | 6. 경영정보관리 | 7. 정보통신기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정보관리 ■ 도서 정보관리 ■ 시리즈 정보관리 ■ DM 발송관리 ■ 코드 설정관리 ■ 자료보관/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고전표처리 ■ 반품전표처리 ■ 조정전표처리 ■ 입금전표처리 ■ 거래명세서 발행 ■ 전표내역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일보 작성 ■ 수금일보 작성 ■ 영업수지일보 ■ 입/출고 내역서 ■ 반품 내역서 ■ 입금 내역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반품재고조회 ■ 도서/반품수불현황 ■ 도서/반품재고현황 ■ 도서/반품재고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원장 조회 ■ 거래원장 작성 ■ 계산서 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스트셀러순위 ■ 서점별 판매순위 ■ 서점별 수금순위 ■ 서점별 미수금순위 ■ 서점별 영업총괄 ■ 기간별 영업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신자료 작성 ■ 자료 송/수신 ■ 수신자료 인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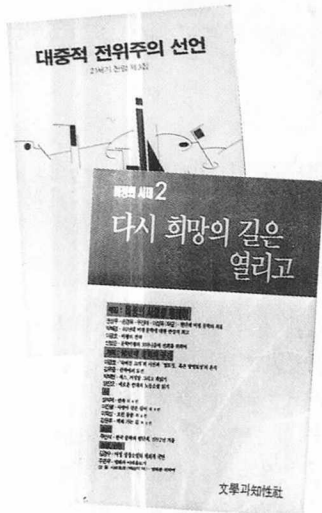
□ 최소한의 경비로 10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수직업무 대폭 간소화에 따른 인력, 시간 절감
- 신속정확한 장부관리 및 각종 보고서 작성 기능
- 상품수불부, 거래원장, 재고현황 등을 자동처리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고객정보, 판매정보 등)

NAL A 나·라·정·보·시·스·템
☎ 566-1933 FAX 557-9225

평론 및 시 부문의 신세대 동인지

「다시 희망의 길은 열리고」 외



현실과 문학 모두가 '혼돈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은 일군의 동인지 문학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비평의 시대' 제2집 「다시 희망의 길은 열리고」와 '21세기 전망' 제3집 「대중적 전위주의 선언」은 각각 평론동인과 시동인의 이같은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현문단의 가장 젊은세대가 모여 "기존의 틀을 해체한 새로운 관계맺기"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비평의 시대'는 제1집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우리 문학의 혼돈과 위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들을 보여준다. 특집으로 마련된 좌담 '현단계 비평문학의 검토'와 일련의 비평문이 그것으로, 권성우·손경목·우찬제·이성욱 등 네 사람의 문학평론가가 참여한 좌담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비평적 지형도를 정밀하게 그려보이는 작업과 함께 지난 연대의 비평적

작업에 대한 의미부여와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범순·박해경·이광호는 각각 80년대 비평과 90년대에 전개된 새로운 비평적 흐름의 태동을 진단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 작품분석을 통한 90년대 문학의 새로운 징후읽기 작업에는 이경호·박해현·김유중·양진호가 참여했다. 창작란에는 주인공의 소설 「한국 문학의 현단계, 1992년 겨울」과 성석제·이진명·이학성·강윤후의 시들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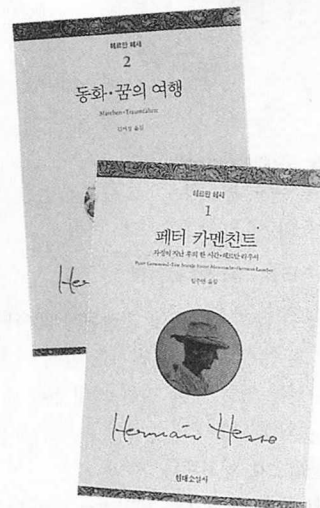
'21세기 전망'은 대중문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새로운 문학적 입시점으로 삼고 "바야흐로 대중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대중의 잠재된 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느 동인과는 달리 시인만으로 구성된 동인체제를 열어 본격적인 '문화동인'을 지향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건축, 미술, 음악, 광고 등 광범위한 문화 전반을 아우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이번 동인지에는 시인 함성호, 미술평론가 이재언, 문학평론가 김진수, 영화기획자 강현의 본격적인 대중문화론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시인 윤세림, 함인복, 권위예술가 김재권이 참여한 자유로운 형식의 대중문화 스케치와 얼마전 개봉된 영화 '바람부는 날에는 양구정동에 가야 한다'의 시나리오(진이정, 유하)도 대중문화 논의의 의미있는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진이정, 박용하, 이선영 등 동인들의 신작시도 선보이고 있다. 문학과지성사/A5신 변형/322면/5500원 세계사/A5신/290면/6000원

최초로 시도되는 헤르만 헤세 전집

「페터 카멘친트」「동화·꿈의 여행」



괴테, 헤르만 헤세, 셰익스피어, 체호프, 마야코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 장 그르니에, 니체, 제임스 조이스, 카뮈 등등.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집출간이 완료되었거나 착수된 대문호들이다. 최고 30여권에 달하는 전집을 번역출간하느라 파산 직전에 몰린 출판사도 있듯, 수익성의 차원을 넘어선 이같은 대규모 기획은 큰 작가들의 전모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작품번역이나 자주 인구에 회자되는 고전급 작품의 재번역도 소중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 대작가들의 전집 번역출간은 우리나라 번역문학의 수준을 수직상승시킬 더욱 소중한 일로 고평된다.

지난해 「괴테전집」(총 28권) 출간으로 전집출판에 뛰어든 현대소설사가 「헤르만헤세전집」 출간도 병행하고 있다. 95년까지 전21권

으로 완간할 예정인 전집 중 1차분 두권이 나왔다. 「페터 카멘친트」(김주연 옮김)와 「동화·꿈의 여행」(김서정 옮김)이 그들이다.

"독일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교량일 뿐 아니라 동서양의 문학적 정서와 그 정신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점"(발간사 중에서)인 헤세의 이번 전집은 독일 주어캄프(Suhrkamp)사의 판본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김주연(숙명여대 독문과) 교수 등 일급의 전공자들이 번역을 맡아 원작과 원작자의 진면목을 펼쳐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헤세의 문학론·일기·편지·회고록 등 국내 초역되는 「문건」들과, 그동안 발췌번역됐던 산문을 완역한 '작품'들도 수록됐다.

제1권 「페터 카멘친트」와 함께 실린 「자정이 지난 후의 한 시간」과 「헤르만 라우서」는 국내 초역의 작품들로 우울하고 아이러니컬한 시선으로 회상하는 어린시절 이야기. 독일소설의 전통적 양식인 교양소설의 테두리를 훌륭히 계승하고 있는 「페터 카멘친트」는 자연의 힘이 어떻게 한 인간을 전인적인 모습으로 키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화와 단편, 짙막한 자전적 이야기들을 모은 「동화·꿈의 여행」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번덕에 대한 작가의 풍자, 합리적 사고·문명에 대한 그의 염증과 의심, 그리고 그것들의 몰락을 예견하는 헤세의 태도가 엿보인다.

소녀취향의 서정시인이자 「데미안」의 작가로만 알려진 통념에 대해 이 두권의 책은 수정을 요구한다.

현대소설사/A5신/각 380, 282면/각 4800, 4000원

클이랑 소개 셋

1 기획부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2 기획

3 회

4 이 따라서 기회들 판(판)과 행동의 돌변(突變)이

5 者】 固 일정한 주견(主見)이 없이

6 형편에 ... 로 행동하는 사람.

기:획【企畫·企劃】(固) 일을 계획함. 1~실(室). 一

기:획-관【企劃官】(固)【법】문화 공보부 홍보 조정실의 하부 3

조정실장을 보좌하여, 홍보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와 언론 기

협조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함. 2급 국가 공

0.1%에 승부를 건다.

아이디어 33.3%, 논리성 33.3%, 현실성 33.3%로 마침내 필까말까필까말까 피어나는 출판의 꽃 기획. 그러나 0.1%가 문제입니다. 클이랑 기획부에서는 0.1%의 정확도를 위해 어권별, 장르별, 저자별로 분류한 <UCC> 가입연도 이전의 번역 원서와 기획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0.1%를 채워 100%의 행운을 잡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숭인2동 482번지 은혜빌딩 3층
전화: 929-1025, 929-1026. 팩스: 927-9066.

- 클이랑에서는 이·린·일·울·했·습·니·다.
- 원고/ 과학동화·전래동화·창작동화 집필. '34권 발행'
- 방송대본을 소설로, 만화를 소년소설로, 영화를 동화로 각색. '9권 발행'
- 기획/ 외국도서의 출판 기획 및 상담.
- 국내도서 아동도서의 기획 및 집필자 섭외
- 편집/ 표지·본문 레이아웃·교정
- 번역/ 영어·일어·독어 소설 및 비소설 번역